

‘취임 100일’ 尹 “저부터 분골쇄신…쓴소리 경청하겠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뜻 받들겠다” “소주성 등 잘못된 경제정책 폐기…상식 복원”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쓴소리로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관훈토론에서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을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

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보다는 지난 100일간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주성(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히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정부는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며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을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며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 기조에 관해서는 “공적부문에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



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외교 현안에 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정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정치적 심장 광주, 마비 직전” 민주 청년정치인들 개혁 호소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인 광주가 마비 직전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날 것을 호소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안 등 3가지 사안을 공개 질의했다.

최유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강한솔 광주시 광산구의원 등 민주당 소속 청년정치인 24명은 1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정치 정상화에 당장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월9일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

“전당대회에 민생·개혁·미래는 없고 계파·줄세우기 뿐”

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며 “이대로 가면 심장은 멈춰 버리고,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투표 당선인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 5배나 증가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지방소멸 위기로 국가 근간이 위태롭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민생과 개혁, 미래는 없고 오로지 계파와 줄세우기로 편을 가르고 있다”며 “이렇게 가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다시 또 ‘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3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

우선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 위성정당 방지 등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 여러 선택지

를 드리고 신호등 정당, 무지개 정당으로 나아가 갈 때 양당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지방소멸 대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기후위기 상황에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린뉴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고민은 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떠난 것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정치권력만을 연명하는 정치, 2년 뒤 총선과 5년 뒤 대선 공천에만 관심을 갖는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며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청년정치인들이 먼저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野,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화자찬…국정쇄신해야”

“궁색한 변명 일관…국민과 기자 실망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자화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빈 수레만 요란했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0일 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

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인적 쇄신, 국정 쇄신 요구에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며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기 바란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